
K-IFRS 도입사례 연구 : A은행의 회계정책 및 대손충당금 설정시스템을 중심으로

김기범*, 정석용**, 황규진***

A Case Study of Implementing K-IFRS : Lessons and Implications from the A Bank

Ki-beom Kim*, Suk-Yong Jung**, Kyu-Jin Hwang***

요약 K-IFRS 도입과 함께 기업 환경에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사례연구는 회계기준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회계처리기준 변경에 따라 기업의 성과수치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실제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K-IFRS는 원칙중심의(Principle-Based) 회계처리기준이기 때문에, 필요적 규정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예전에 비해 회사 내부적으로 K-IFRS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A은행의 회계정책 및 대손충당금 설정시스템을 통한 대응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K-IFRS 도입에 대응하여 기업 스스로가 혁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주제어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발생손실, 원칙중심, 회계시스템

Abstract This kind of case study suggests a way for future's accounting standards under the complicated situation of K-IFRS. A change of accounting standards causes a severely different performance between K-IFRS and K-GAAP. Further, the change affects the whole business of the financial companies. As the K-IFRS is not a rule based accounting standard but a principle based accounting standard, companies have to keep their internal system in detail. Likewise, companies can get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field.

Key Words : K-IFRS, K-GAAP, Incurred loss, Principle-Based, Accounting system

1. 서론

OECD 가입국의 80% 이상이 국제회계기준(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도입하였고, 다른 나라들도 추가적으로 IFRS 전면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IFRS 도입은 상당한 직·간접 비용이 발생하는 회계혁명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가들이 IFRS를 전면 도입하는 이유는, 자본시장이 글로벌화되면서 IFRS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기 때문이다.

각국마다 독자적 회계기준을 가질 경우 국가별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며 글로벌 자본자유화 정도

가 약화된다. 대다수 국가가 IFRS를 도입할 경우 국경을 넘어 자본 이동이 쉬워지고 기업들이 감당하게 될 자본비용은 낮아질 것이다. 이것이 IFRS를 세계 각국으로 확산시키려는 이유가 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이슈가 된 한국기업의 낮은 회계투명성이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의 상당부분이 반영된 기업회계기준서(이하 'K-GAAP')를 제정하였으나, 여전히 Local-GAAP라는 평가를 벗어날 수 없었고, 국제신인도 면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정부주도하에 2007년 12월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이 공포되었고, 2011년 실적이 공표되는 2012년

*서강대학교 회계학 박사(책임저자)

**동양미래대학교 전산정보학부 교수(교신저자)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공동저자)

논문접수: 2013년 1월 19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3년 2월 10일, 확정일: 2013년 2월 20일

부터 모든 상장사는 K-IFRS 재무보고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A은행의 사례를 통해 K-IFRS 도입의 과정에서 회계시스템 구축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IFRS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우리나라 기업 회계기준 국제화를 위한 지향점을 제시하거나(강선민 등(2009)[1]), IFRS도입에 따른 국내 제도 및 환경변화 연구(김예경(2009)[2], 오준환 등(2006)[4], 여은정 등(2007)[5]), 그리고 IFRS 도입 기업에 대한 사례연구(송인만 등(2007)[3], 이용수(2007)[6], 임석식 등(2008)[7], 황인태 등(2008)[8]) 등에 국한되었다. 등에 국한되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K-IFRS 도입에 따라 국내 대형 은행(이하 'A은행')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K-IFRS를 구축하였는지, 구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어떠한지 그리고 구축 결과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의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K-IFRS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및 도입 배경은 기존 연구들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II장에서 A은행의 K-IFRS 도입 배경 및 K-IFRS 도입이 A은행에 미치는 영향, 과제 및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III장에서 A은행의 K-IFRS 구축과정을 살펴보고, IV장에서는 K-IFRS 구축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V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2. K-IFRS 도입 초기 A은행의 당면과제

2.1 A은행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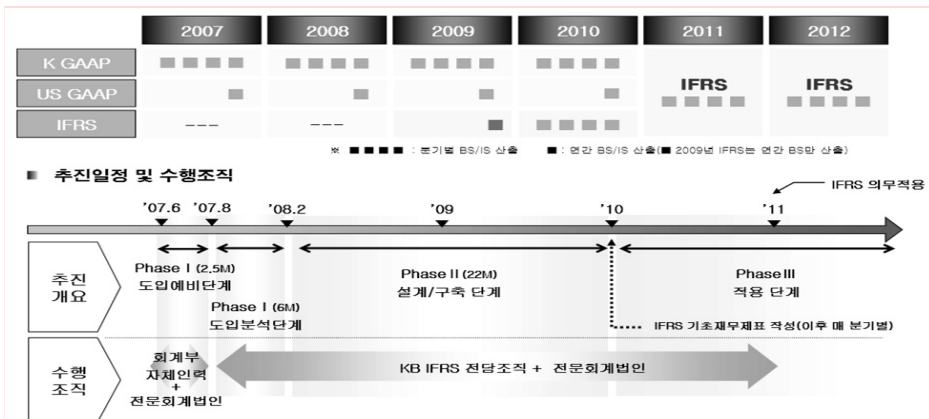
A은행은 글로벌금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영진

반에 걸쳐 혁신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각국의 회계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의 비용을 부담하였으나 K-IFRS를 전격 도입하여 낡고 관행적이었던 각종 제도,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혁파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갖추고자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 중이다.

2.2 K-IFRS 도입의 부담요인

200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금융기업을 목표로 꾸준한 혁신을 추구했던 A은행의 경영진은 K-IFRS 도입이 국제화 및 자본시장 개방화의 중요한 요소로서 글로벌 금융기업으로의 도약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K-IFRS 도입을 단순한 회계프로세스 차원에서의 혁신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금융기업으로 거듭나는 발판으로 삼고자 했던 A은행의 경영진은 먼저 그 부담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K-IFRS 도입에 따른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혁신보다 낮은 수준의 시스템 혁신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회계제도 · IT 시스템 · 내부통제 등을 재설계해야 하는 위험 및 실무적 부담, 재설계로 인한 필연적인 Business Process의 재정비는 불확실성을 야기할 요소가 되었다. 또한 K-IFRS의 본격 도입 직전까지 K-GAAP 및 US-GAAP 결산을 위해 기존 시스템은 유지되어야 했으며, 세 기준에 의한 재무보고가 이루어져야 했다. 이는 담당실무진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다.

또한, A은행의 경제적 실질에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K-IFRS 도입을 통해 BIS 자기자본 비율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K-IFRS 도입이 은행의 경제적 실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 K-IFRS 적용기준 기간별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

2.3 K-IFRS 도입을 위한 A은행의 예비적 과제

K-IFRS 도입을 위한 정부 발표 로드맵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2011년도부터 의무적으로 K-IFRS에 의한 재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했다. A은행의 경영진은 2010년 이전에 K-IFRS 재무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년부터 K-IFRS에 의한 재무보고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림 1>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2010년 분기/반기/연차 재무보고를 위해서는 적어도 2009년 말 기준 재무상태표가 K-IFRS에 의해 작성되어야 했고, 2009년 말까지 K-IFRS 관련 인프라 구축완료를 목표로 최고경영진의 적극적 인식과 지원하에 2007년 8월 경 전담 태스크포스 조직이 구성되어 체계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한편, A은행의 경영진은 K-IFRS 도입으로 인해 기존 K-GAAP 대비 경영지표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미리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했다. 이를 통해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시그널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경영지표 불확실성에 의한 기업가치의 훼손 등이 방지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마지막으로 K-IFRS 구축, 실행 및 유지를 위한 전문 인적자원을 사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계획·실행하였다.

3. K-IFRS 구축과정

3.1 K-IFRS 도입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

3.1.1 자회사의 K-IFRS 적용 및 구축

K-IFRS는 연결재무제표 기반의 회계기준이므로 자회사 수준에서도 K-IFRS 시스템이 도입·운영되어야 했으나, 현실적으로 상당수 A은행의 자회사가 비상장회사인데다 소규모 기업인 자회사는 자체적인 회계정책, 관련 시스템 및 K-IFRS 대응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3.1.2 K-IFRS 전문가 양성

내부전문가는 K-IFRS 도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전문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K-IFRS 도입은 장기프로젝트였으며,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K-IFRS 전문 연수 프로그램 및 K-IFRS 도입 해외 은행 벤치마킹 등이 기획·추진되었다.

3.1.3 K-IFRS 도입의 필요성 인식

K-IFRS 도입은 단순한 회계기준의 변경이 아니라, 은행업무 전반에 걸친 혁신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이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도입 초기부터 전폭적 지원, 협력 및 동참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초기 A은행 내에서 이러한 인식은 반약했으며, 경영진을 대상으로 K-IFRS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본부 부서 회계담당자 전원을 대상으로 K-IFRS 워크샵 및 교육이 실시되었다. 교육내용은 주로 이전의 K-GAAP에 비해 각 영역별로 K-IFRS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그로 인한 변화 등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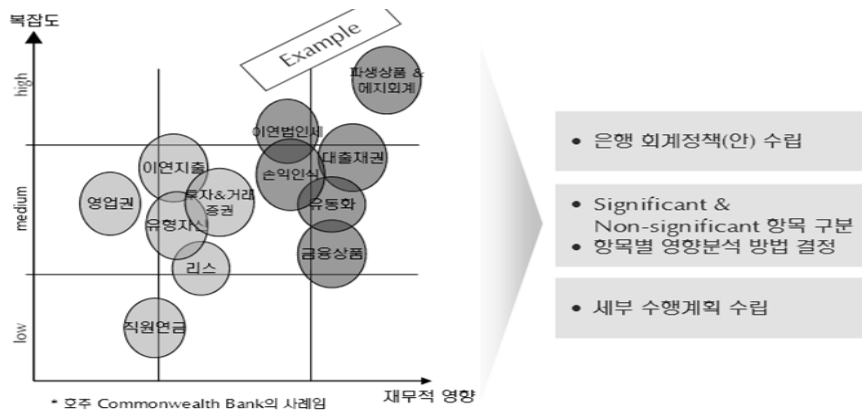
3.2 도입예비단계에서 A은행이 수행한 주요업무

‘도입예비단계’는 A은행 회계부서 주도하에 수행되었다. 주요 업무는 K-IFRS 구축을 위한 외부전문기관 선정, K-IFRS 도입 효과에 대한 예비분석, K-IFRS 선진사례 연구 및 전 은행차원에서의 K-IFRS 도입인식 제고 등을 위한 업무수행이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K-IFRS 도입이 단순한 회계부문 변화가 아닌 전 은행적 혁신을 요구하는 사안임을 인식시키는 것이었다.

3.3 도입분석단계에서 A은행이 수행한 주요업무

2007년 8월, K-IFRS 전담 수행조직이 구성되어 약 6개월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외부전문기관의 업무협조 하에, K-IFRS 도입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공시 요구 항목 분석·IT 시스템 영향 검토·TO-BE 도출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선진사례연구 및 벤치마킹 및 K-IFRS 전문교육 실시 등의 업무가 수행되었다.

특히, A은행은 <그림 2>에서와 같이 K-IFRS 선진국인 호주은행을 벤치마크하여 K-IFRS 도입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각 항목을 중요항목과 비중요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기초로 K-GAAP 재무시스템으로부터 산출된 데이터와 K-IFRS에서 요구하는 회계정보 데이터 간 차이수준에 따라 위 항목을 다시 Green/Yellow/Red로 그룹핑하였다. Green 그룹 항목은 현행 K-GAAP 재무시스템으로부터 산출된 데이터가 K-IFRS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이들 항목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작업 등이 수행되지 않는다. 데이터가 존재 또는 산출가능하나 K-IFRS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Yellow 그룹으로 분류하여 기존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Red 그룹의 경우 현행시스템하



[그림 2] 벤치마크 은행을 이용한 항목의 중요성 정도에 따른 구분

에서 K-IFRS가 요구하는 데이터가 전혀 산출되지 않는 경우이며, 따라서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3.4 K-IFRS 설계 및 구축단계에서의 주요 업무

‘설계·구축단계’인 2008년 2월부터 약 22개월간 본격적인 K-IFRS 도입을 위한 관련 시스템이 설계·구축되었다. 즉, K-IFRS 회계정책 및 기준 수립/K-IFRS 회계업무메뉴얼 작성/K-IFRS 관련 각종 시스템 설계·구축 테스트/선진사례연구 및 벤치마킹/세부 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등을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0년부터 A은행은 K-IFRS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4. K-IFRS 도입의 영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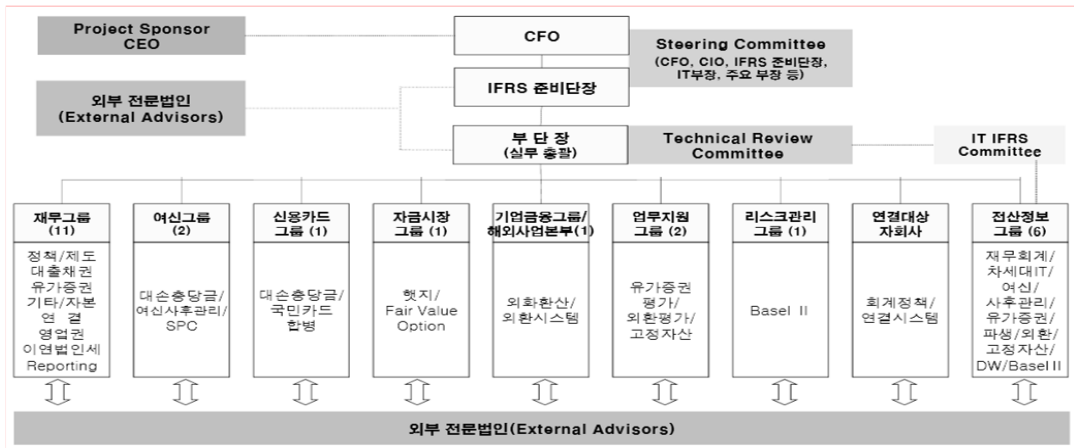
규정 중심의(Rule-Based) K-GAAP에 비해 원칙 중심의(Principle-Based) K-IFRS에서 경영자 재량의 폭이 넓어졌다. A은행은 이를 고려하여, K-IFRS 도입시 항목별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가 K-GAAP에 비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수작업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실시간 이익조정 결과를 경영진이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1 K-IFRS 도입과 대손충당금 설정의 영향

K-GAAP하에서 A은행은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회계처리지침을 준수해 왔다. A은행은 <그림 3>과 같이 금융감독원 규정으로 요구되는 최소적

립률과 채권그룹별 평가방식 시 인용되는 경험손실률 중 높은 적립률을 대손충당금 설정률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왔다.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4-02’에 의해 관련 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었기에 이를 따른 것이었다. 한편, 식별된(Identified) 신용손실(Credit loss)에 대한 관점은 K-IFRS 손상차손과 바젤II 기대손실(Basel II Expected losses) 두 개로 대별된다. K-IFRS 손상차손은 재무상태표일 현재 과거에 발생한 손실사건(Loss event)으로 인해 대출채권에 내재된 손실 즉, 발생손실(Incurred Loss)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다음의 예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가령, A은행이 B회사에 1억원을 대출해주고, 과거의 손실 경험에 기초할 때 원금의 1%는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되어 100만원 만큼의 손상손실을 인식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는 K-IFRS를 준수한 것일까? 위 예에서 A은행은 바젤II 기대손실(Basel II Expected losses) 관점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이다. K-IFRS에 따르면, 대출일 현재 객관적 손상징후가 없을 경우 손상차손은 인식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K-IFRS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K-IFRS 하에서, A은행은 대손충당금 설정에 있어 재량을 갖게 되었다. 즉,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른 최소적립률과 과거 대손확정의 평균값 개념인 경험손실률은 경영자의 주관적 측정을 배제하는데 보다 중점을 둔 측정치인 반면, K-IFRS의 발생손실 개념에 입각한 대손충당금 설정에는 경영자의 주관적 개입될 여지가 있다.



[그림 3] A은행의 K-IFRS 도입 태스크포스 조직구성도

4.2 대손충당금 설정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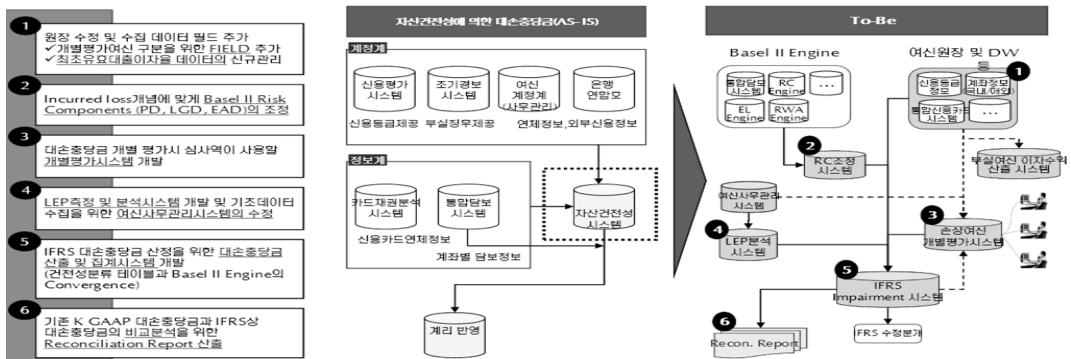
A은행이 K-IFRS 도입을 위해 결성한 K-IFRS 태스크포스 조직은 <그림 4>와 같다. CEO의 지원하에 CFO가 책임을 지고 조직을 진두지휘하는 조직이며, IT K-IFRS 위원회가 실무를 총괄하는 별도의 기구로 편성된 것이 특이하다. K-IFRS 도입시 IT 시스템이 조직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K-IFRS 적용 초기에는 K-GAAP, US-GAAP 및 K-IFRS 기준 모두에 의한 재무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분/반기 연결재무제표는 45일 이내에 공시되어야 한다. 즉, 신속한 재무보고가 가능하도록 프로세스가 재구축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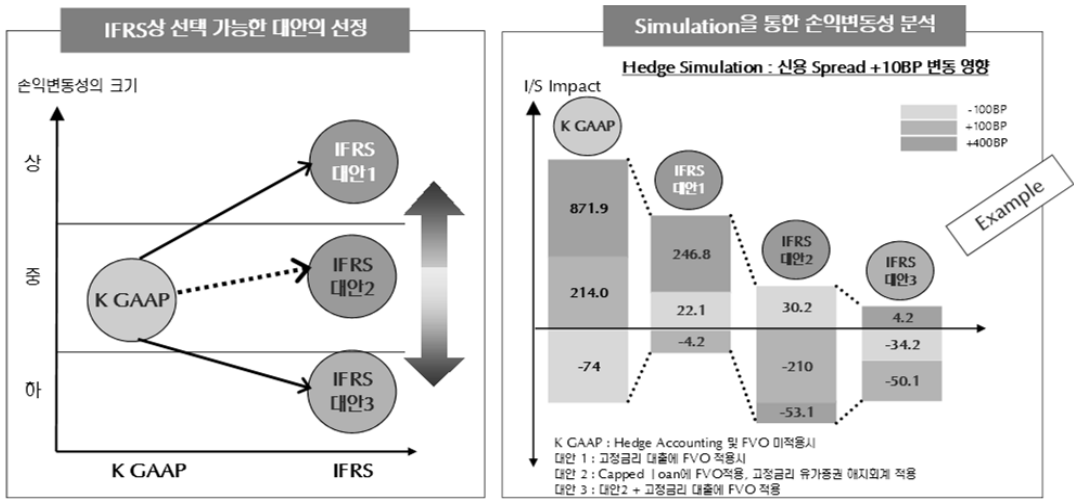
K-IFRS가 발생손실(Incurred Loss)개념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A은행은 경험손실률에 의해 발생손실을 계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추정모델을 설정하였다. 또한 K-IFRS가 요구하는 경험손실률

산출을 위해 기존의 Basel II에 추가하여 Roll rate나 Migration 모형도 사용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에 더하여, 거액부실여신의 개별평가를 위한 프로세스 및 시스템도 개발하였고, 이를 공시정보 산출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속한 공시가 가능해졌다.

회계기준의 변화로 인해 손익변동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만약 관련 IT시스템 설계 및 구축시 면밀한 작업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체계적 오류로 인해 경영자의 의지와 무관한 경영성과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5>에 의하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K-GAAP 하에서 A은행의 여신고객 관련 신용등급은 연체정보와 외부 신용평가기관인 은행연합회 자료를 토대로 설정되었다. 즉, 카드 채권분석시스템과 통합담보시스템이 신용카드연체정보 및 계좌별 담보정보를 산출해내고 이를 토대로, 자산건전성 시스템이 금융감독원 자산건전성 최소적립률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출했다.



[그림 4] 대손충당금 설정 프로세스, K-GAAP vs K-IFRS



[그림 5] K-IFRS 상 선택가능한 대안 및 손익변동성 분석

새로운 K-IFRS 재무보고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계정계에 개별평가여신 구분을 위한 필드가 추가되었다. 또한 현재가치 계산을 위한 최초유효이자율이 별도의 데이터로 신규관리되고, 여기에 통합신용카드시스템이 추가되어 기존의 은행연합회와 신용평가시스템을 대체한다. 이를 통해 발생손실의 엄격적용이 가능하여 보다 목적적합한 대손충당금 및 관련 재무보고의 기초데이터가 산출된다. 여기에 손상여신개별평가시스템을 통해 심사역이 대손충당금에 대한 개별평가를 수행하면, 산출된 자료를 통합하여 건진성분류 표와 Basel II 엔진의 융합개념인 K-IFRS Impairment시스템이 최종 대손충당금을 산출 · 집계한다.

<그림 6>의 왼편 그래프에 보이는 바와 같이 K-GAAP에 비해 K-IFRS 재무보고 시스템은 다양한 대안선택(대안1 - 대안3)이 가능하다. 대안별 손익효과는 <그림 6>의 오른편 그래프와 같다. 이를 통해 K-IFRS 도입시 K-GAAP에 비해 경영자 재량으로 인해 손익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3 K-IFRS 도입이 기타항목에 미치는 영향

이자수익과 관련하여 K-GAAP과 K-IFRS는 이론상 차이가 없다. 즉, K-GAAP에서는 ‘기간 경과에 따른 발생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K-IFRS는 유효이자율법에 입각하여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유효이자율’로 산출한다. 다만, K-IFRS에서는 유효이자율법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부외 미사용한도(충당부채 관련 항목)에 대하여 최소화적립률이 아닌 최선의 추정치를 활용할 경우 충당금의 금액적 변동이 중요해진다. 이 경우 한도관리 및 미사용한도에 대한 수수료 부과 등 의사결정에 따라 A은행의 실질적 경영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화환산회계에 있어서도 K-IFRS는 기능통화의 개념, 화폐성/비화폐성의 항목 구분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재무제표 구성 요소별 적용 환율이 상이하게 되어 해외지점 및 해외현지법인의 기능통화가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외환업무부 및 해외지점 및 해외현지법인 담당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게 되었다.

5. 결론 및 한계점

K-IFRS 도입으로 인하여 단순히 보이는 회계처리 변경이 실제 금융기관의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부채비용 상승으로 자본조달금리가 상승하며, 기존 차입약정서상 자기자본 유지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할 경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른바 부채계약 위반이 발생할 수도 있다. K-GAAP하에서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던 항목이 부채로 재분류될 경우 신용등급 변화 및 대출금리 변동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서 결국, 회계처리기준의 변화가 기업 실적에도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K-IFRS는 원칙중심의(Principle-Based) 회계처리기

준이다. 따라서 K-IFRS는 필요적 규정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자본시장의 고도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계약조건이나 권리 등이 부여된 신종금융상품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계약조건의 실질을 파악하여 자본과 금융부채를 분류하는 등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임의로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K-IFRS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과 금융부채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문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K-IFRS 도입에 대응하여 기업 스스로의 혁신뿐 아니라, 금융감독기관 등도 상당한 변화를 요구받게 된다. K-IFRS가 적용될 경우 회계상 분류의 변경이 발생하지만 BIS비를 산정시 포함되는 자기자본의 범위는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LOC, 금융자산의 분류, Bid-Ask Price Valuation, FVO의 적용 및 간편법 위험회피회계의 금지 등의 항목에 있어 K-IFRS 도입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 등이 분석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K-IFRS 도입과정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자 하였기에 이러한 한계점을 갖게 되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K-IFRS 도입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 등이 체계적으로 분석된 후행연구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1] 강선민, 한봉희, 황인태(2009), 국제회계기준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영국과 호주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저널(제18권 제2호)
- [2] 김예경(2009),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현황과 기업의 대응전략, 국제회계연구(제26집)
- [3] 송인만, 이창우, 이갑재, 남혜정(2007), 국제회계기준 도입모형 및 전략, 회계와감사연구(제45호)
- [4] 오준환, 김호중, 김성남(2006), 국제회계기준의 수용방안에 관한 연구: 수용기준, 대상 및 시기의 결정을 중심으로, 회계저널(제15권 제2호).
- [5] 여은정, 고윤성, 김지홍(2007),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국제회계연구(제19권)

- [6] 이용수(2007), 국제회계기준 도입현황, 우정정보 70
- [7] 임석식, 김경태, 이영한(200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의 실무적 문제점 및 대책, 국제회계기준원 보고서
- [8] 황인태, 한봉희, 강선민. 2008.12.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김 기 범



- 2002년 8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2007년 8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12년 8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13년 1월~현재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대우교수

· 관심분야 : 회계감사, 공시정책
· E-Mail : kibum2005@hanmail.net

정 석 용



- 1987년 2월 : 서울대학교(계산통계학사)
- 1993년 8월 : 한국과학기술원(정보 및 통신공학 석사)
- 2004년 2월 : 아주대학교(컴퓨터공학박사)
- 1996년 3월~현재 : 동양미래대학교 전산정보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정보통신, 컴퓨터공학
· E-Mail : syjung@dongyang.ac.kr

황 규 진



- 1989년 2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1991년 2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05년 8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1998년 3월~현재 :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연결재무제표론, 정부회계정책
· E-Mail : qhwang@dongyang.ac.kr